

Hahmlet
함렌



William Shakespeare
윌리엄 셰익스피어
Claudius Caesar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Vita Amlethi
비타 암레티
Lucius Junius Brutus
루시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Hrólfs saga kraka
흐뢸프스 사가 크라카
Gesta Danorum
게스타 다노룸

함멜 Hahmlet

Year	2020
Client	Google
Family	9 weights
Designer	Minjoo Ham (Hangeul), Mark Frömgberg (Latin)
Spec.	Hangeul: 2,780 Characters, Latin: Expert (For text and workhorse typefaces that must supply everything typographers need, such as small caps, an additional 300 glyphs) Hahmlet supports 221 languages
	Abenaki, Afaan Oromo, Afar, Afrikaans, Albanian, Alsatian, Amis, Anuta, Aragonese, Aranese, Aromanian, Arrernte, Arvanitic, Asturian, Atayal, Aymara, Azerbaijani, Bashkir, Basque, Belarusian, Bemba, Bikol, Bislama, Bosnian, Breton, Cape Verdean, Catalan, Cebuano, Chamorro, Chavacano, Chichewa, Chickasaw, Cimbrian, Cofan, Cornish, Corsican, Creek, Crimean Tatar, Croatian, Czech, Danish, Dawan, Delaware, Dholuo, Drehu, Dutch, English, Esperanto, Estonian, Faroese, Fijian, Filipino, Finnish, Folkspraak, French, Frisian, Friulian, Gagauz, Galician, Ganda, Genoese, German, Gikuyu, Gooniyandi, Greenlandic, Greenlandic Old Orthography, Guadeloupean, Gwichin, Haitian Creole, Han, Hawaiian, Hiligaynon, Hopi, Hotcak, Hungarian, Icelandic, Ido, Igbo, Ilocano, Indonesian, Interlingua, Irish, Istroromanian, Italian, Jamaican, Javanese, Jerriais, Kaingang, Kala Lagaw Ya, Kapampangan, Kaqchikel, Karakalpak, Karelian, Kashubian, Kikongo, Kinyarwanda, Kiribati, Kirundi, Klingon, Kurdish, Ladin, Latin, Latino Sine, Latvian, Lithuanian, Loiban, Lombard, Low Saxon, Luxembourgish, Maasai, Makhuwa, Malay, Maltese, Manx, Maori, Marquesan, Meglenoromanian, Meriam Mir, Mirandese, Mohawk, Moldovan, Montagnais, Montenegrin, Murrinhpatha, Nagamese Creole, Nahuatl, Ndebele, Neapolitan, Ngiyambaa, Niuean, Noongar, Norwegian, Novial, Occidental, Occitan, Old Icelandic, Old Norse, Oshiawambo, Ossetian, Palauan, Papiamento, Piedmontese, Polish, Portuguese, Potawatomi, Qeqchi, Quechua, Rarotongan, Romanian, Romansh, Rotokas, Sami Inari, Sami Lule, Sami Northern, Sami Southern, Samoan, Sango, Saramaccan, Sardinian, Scottish Gaelic, Serbian, Seri, Seychellois, Shawnee, Shona, Sicilian, Silesian, Slovak, Slovenian, Slovio, Somali, Sorbian Lower, Sorbian Upper, Sotho Northern, Sotho Southern, Spanish, Sranan, Sundanese, Swahili, Swazi, Swedish, Tagalog, Tahitian, Tetum, Tok Pisin, Tokelauan, Tongan, Tshiluba, Tsonga, Tswana, Tumbuka, Turkish, Turkmen, Tuvaluan, Tzotzil, Ukrainian, Uzbek, Venetian, Vepsian, Vietnamese, Volapuk, Voro, Wallisian, Walloon, Waraywaray, Warlpiri, Wayuu, Welsh, Wíkmungkan, Wiradjuri, Wolof, Xavante, Xhosa, Yape, Yindjibarndi, Zapotec, Zazaki, Zulu, Zuni

Thi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ExtraLight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Light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Regular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Medium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SemiBold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Bold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ExtraBold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Black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 함렐 글자 가족 Hahmlet Family ◀

Thin

ExtraLight

Light

한g

한g

한g

Regular

Medium

SemiBold

한g

한g

한g

Bold

ExtraBold

Black

한g

한g

한g

엘리자베스
Guildenstern

괴팍한언행
Abridgements

고전적인극원리
Stichomythia

독특한인물상
Asyndeton

덴마크의왕자
Byzantium

침착한복수자
Shakespeare

클로디어스
Bad Quarto

좌충우돌반항아
Paraphrasings

Thin

구글의 철학은 "You can make money without doing evil."(일을 해지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와, "You can be serious without wearing a suit."(정장 없이도 진지해질 수 있다) 그리고 "Work should be challenging and the challenge should be fun."(일을 해야 하고 도전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이다. 'Don't Be Evil' (나쁜 것 하지 말자)이라는 철학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사용자 층에 있는 쿠키에 대한 비난으로, 미국의 인권단체 'Public Information Research'에 의해, 구글은 빅브라더 상(Big Brother Award)을 받게 되기도 했다. 구글은 형식을 따지지 않는 자유롭고 재미있는 문화로 잘 알려져 있다. 2007, 2008 구글은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되었다. 구글 엔지니어들은 '직감'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단력 같은 것은 정량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험을 중시한다. 그들은 사실과 베타 테스트와 수학적 논리를 추구하는 지구 온난화 문제에도 관심을 보인다. 구글은 사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1천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만한 전기를 생산한다. 외부 주차장에 태양발전소를 두어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게 했고,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 직원에게는 장려금 (처음에는 5천 달러, 현재는 3천 달러)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을 바지하기 위해 구글이 제공하는 자전거가 도처에 배치된다. 1999년 8월 처음 구글플렉스로 이주했을 때, 거기에는 '직원들이 내부 일에만 집중하게 하겠다'는 결의가 반영되어 있었다. 구글 플렉스에는 2~3층짜리 나지막한 건물이 모여있고, 건물 밖에는 야외테이블과 벤치, 울창한 나무들, 채소 정원, 사람과 자전거로 활기 넘치는 산책로가 있다. 직원들은 무료 식사와 다과를 즐기고 (매년 구글은 여기에만 1천만 달러 정도를 쓴다), 트레이너가 대기하는 체육관과 마사지실이 붙어 있는 건물들 사이로 이동할 자전거를 지급받는다. 직원들은 커다란 키친에서 식사하고, 당구대와 에스프레소 기계가 있는 라운지에서 오일 교환 때문에 캠퍼스를 떠날 필요도 없다. 목요일마다 세차나 오일 교환 때문에 캠퍼스를 떠날 필요도 없어 검진 차량이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이발사, 세탁업자, 보우미, 치과의사, 그리고 무료 검진 담당의도 5명이나 있다. 편안한 침대와 무선인터넷이 완비된 바이오 디젤 통근 버스가 직원들을 란시스코까지 늦은 밤까지 실어 나른다. 노트북 컴퓨터도 그저 마음에 드는 모델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여성은 출산 휴가를 간 유급으로 낼 수 있고, 신생아 아빠는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낼 수 있다.

ExtraLight

구글의 철학은 "You can make money without doing evil."(일을 해지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와, "You can be serious without wearing a suit."(정장 없이도 진지해질 수 있다) 그리고 "Work should be challenging and the challenge should be fun."(일을 해야 하고 도전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이다. 'Don't Be Evil' (나쁜 것 하지 말자)이라는 철학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사용자 층에 있는 쿠키에 대한 비난으로, 미국의 인권단체 'Public Information Research'에 의해, 구글은 빅브라더 상(Big Brother Award)을 받게 되기도 했다. 구글은 형식을 따지지 않는 자유롭고 재미있는 문화로 잘 알려져 있다. 2007, 2008 구글은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되었다. 구글 엔지니어들은 '직감'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단력 같은 것은 정량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험을 중시한다. 그들은 사실과 베타 테스트와 수학적 논리를 추구하는 지구 온난화 문제에도 관심을 보인다. 구글은 사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1천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만한 전기를 생산한다. 외부 주차장에 태양발전소를 두어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게 했고,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 직원에게는 장려금 (처음에는 5천 달러, 현재는 3천 달러)을 제공한다. 구글은 수익의 1%를 때어내 자선사업 부문인 구글基金会에 보낸다. 넓은 캠퍼스 부지 내에서의 건물 간 이동을 위해 신청해 차량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을 바지하기 위해 구글이 제공하는 자전거가 도처에 배치된다. 구글이 1999년 8월 처음 구글플렉스로 이주했을 때, 거기에는 2~3층짜리 나지막한 건물이 모여있고, 건물 밖에는 야외테이블과 벤치, 울창한 나무들, 채소 정원, 사람과 자전거로 활기 넘친다. 직원들은 무료 식사와 다과를 즐기고 (매년 구글은 여기에만 1천만 달러 정도를 쓴다), 트레이너가 대기하는 체육관과 마사지실이 붙어 있는 건물들 사이로 이동할 자전거를 지급받는다. 직원들은 커다란 키친에서 식사하고, 당구대와 에스프레소 기계가 있는 라운지에서 세차나 오일 교환 때문에 캠퍼스를 떠날 필요도 없어 검진 차량이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이발사, 세탁업자, 보우미, 치과의사, 그리고 무료 검진 담당의도 5명이나 있다. 편안한 침대와 무선인터넷이 완비된 바이오 디젤 통근 버스가 직원들을 란시스코까지 늦은 밤까지 실어 나른다. 노트북 컴퓨터도 그저 마음에 드는 모델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여성은 출산 휴가를 간 유급으로 낼 수 있고, 신생아 아빠는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낼 수 있다.

Light

구글의 철학은 "You can make money without doing evil."(일을 해지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와, "You can be serious without wearing a suit."(정장 없이도 진지해질 수 있다) 그리고 "Work should be challenging and the challenge should be fun."(일을 해야 하고 도전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이다. 'Don't Be Evil' (나쁜 것 하지 말자)이라는 철학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사용자 층에 있는 쿠키에 대한 비난으로, 미국의 인권단체 'Public Information Research'에 의해, 구글은 빅브라더 상(Big Brother Award)을 받게 되기도 했다. 구글은 형식을 따지지 않는 자유롭고 재미있는 문화로 잘 알려져 있다. 2007, 2008 구글은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되었다. 구글 엔지니어들은 '직감'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단력 같은 것은 정량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험보다는 경험을 중시한다. 그들은 사실과 베타 테스트와 수학적 논리를 추구하는 지구 온난화 문제에도 관심을 보인다. 구글은 사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1천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만한 전기를 생산한다. 외부 주차장에 태양발전소를 두어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게 했고,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 직원에게는 장려금 (처음에는 5천 달러, 현재는 3천 달러)을 제공한다. 구글은 수익의 1%를 때어내 자선사업 부문인 구글基金会에 보낸다. 넓은 캠퍼스 부지 내에서의 건물 간 이동을 위해 신청해 차량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을 바지하기 위해 구글이 제공하는 자전거가 도처에 배치된다. 구글이 1999년 8월 처음 구글플렉스로 이주했을 때, 거기에는 2~3층짜리 나지막한 건물이 모여있고, 건물 밖에는 야외테이블과 벤치, 울창한 나무들, 채소 정원, 사람과 자전거로 활기 넘친다. 직원들은 무료 식사와 다과를 즐기고 (매년 구글은 여기에만 1천만 달러 정도를 쓴다), 트레이너가 대기하는 체육관과 마사지실이 붙어 있는 건물들 사이로 이동할 자전거를 지급받는다. 직원들은 커다란 키친에서 식사하고, 당구대와 에스프레소 기계가 있는 라운지에서 세차나 오일 교환 때문에 캠퍼스를 떠날 필요도 없어 검진 차량이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이발사, 세탁업자, 보우미, 치과의사, 그리고 무료 검진 담당의도 5명이나 있다. 편안한 침대와 무선인터넷이 완비된 바이오 디젤 통근 버스가 직원들을 란시스코까지 늦은 밤까지 실어 나른다. 노트북 컴퓨터도 그저 마음에 드는 모델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여성은 출산 휴가를 간 유급으로 낼 수 있고, 신생아 아빠는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낼 수 있다.

Regular

구글의 철학은 "You can make money without doing anything but you can't do anything without making money."(돈을 벌 수 있다. 해지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와, "You can be serious about work and challenging and the challenge should be fun."(정직하고 도전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Work is challenging and the challenge should be fun."(정직하고 도전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이다. 'Don't Be Evil' (나쁜 말자)이라는 철학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사용자들 사이에 있는 쿠키에 대한 비난으로, 미국의 인권단체 'Public Citizen Research'에 의해, 구글은 빅브라더 상(Big Brother Award)을 받게 되기도 했다. 구글은 형식을 따지지 않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로 잘 알려져 있다. 2007, 2008년 구글은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로 뽑혔다. 구글 엔지니어들은 '직감'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판단력 같은 것은 정량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윤리를 중시한다. 그들은 사실과 베타 테스트와 수학적 논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 구글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도 관심을 보인다. 구글은 사내 기업 캠퍼스 가운데 가장 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1천瓩의 전력을 공급할 만한 전기를 생산한다. 외부 주차장에 태양발전소를 설치해 차량을 충전할 수 있게 했고,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는 직원에게는 장려금 (처음에는 5천 달러, 현재는 2천 달러)을 제공한다. 구글은 수익의 1%를 때어내 자선사업 부문인 구글 러브 캠페인에 보낸다. 넓은 캠퍼스 부지 내에서의 건물 간 이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구글이 제공하는 자전거가 도처에 있다. 구글이 1999년 8월 처음 구글 플렉스로 이주했을 때, 사람들이 내부 일에만 집중하게 하겠다'는 결의가 반영되어 오늘날 구글 캠퍼스에는 2~3층짜리 나지막한 건물이 모여있고, 건물 밖에는 벤치, 울창한 나무들, 채소 정원, 사람과 자전거로 활기찬 환경이다. 직원들은 무료 식사와 다과를 즐기고 (매년 구글 헤드 채우는 정도를 쓴다), 트레이너가 대기하는 체육관과 어울리는 건물들 사이로 이동할 자전거를 자주 이용한다. 직원들은 페테리아 탁자에서 식사하고, 당구대와 에스프레소 기계에서 쉰다. 세차나 오일 교환 때문에 캠퍼스를 떠날 필요가 있다면 검진 차량이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이발사, 세탁업자, 물 도우미, 치과의사, 그리고 무료 검진 담당의도 5명이나 된다. 좌석에 무선인터넷이 완비된 바이오 디젤 통근 버스가 직원들이 샌프란시스코까지 늦은 밤까지 실어 나른다. 노트북 컴퓨터는 물론 그저 마음에 드는 모델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여성 직원들은 5개월간 유급으로 낼 수 있고, 신생아 아빠는 마찬가지로 휴가를 낼 수 있다.

edium

SemiBold

구글의 철학은 "You can make money without doing evil. 해지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와, "You can be serious with a suit."(정장 없이도 진지해질 수 있다) 그리고 "Work should be challenging and the challenge should be fun."(일은 도전해야 하고 도전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이다. 'Don't Be Evil' (나쁜하지 말자)이라는 철학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사용자 컴퓨터 내에 있는 쿠키에 대한 비난으로, 미국의 인권단체 'Public Information Research'에 의해, 구글은 빅브라더 상(Big Brother Awards)을 보가 되기도 했다. 구글은 형식을 따지지 않는 자유롭고 재미있는 문화로 잘 알려져 있다. 2007, 2008 구글은 가장 일하기 좋은 장소로 뽑혔다. 구글 엔지니어들은 '직감'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인간이나 판단력 같은 것은 정량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험보다 율을 중시한다. 그들은 사실과 베타 테스트와 수학적 논리를 추구한다. 구글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도 관심을 보인다. 구글은 사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1천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만한 전기를 생산한다. 외부 주차장에 태양발전소를 두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게 했고,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하는 직원에게는 장려금 (처음에는 5천 달러, 현재는 3천 달러)을 제공한다. 구글은 수익의 1%를 때어내 자선사업 부문인 구글 파운데이션에 보낸다. 넓은 캠퍼스 부지 내에서의 건물 간 이동을 위해 신청해 차량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강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구글이 제공하는 자전거가 도처에 배치된다. 구글이 1999년 8월 처음 구글 플렉스로 이주했을 때, 거기에는 직원들이 내부 일에만 집중하게 하겠다'는 결의가 반영되어 있었다. 구글 플렉스에는 2~3층짜리 나지막한 건물이 모여있고, 건물 밖에는 야외 테이블과 벤치, 울창한 나무들, 채소 정원, 사람과 자전거로 활기 넘치는 책로가 있다. 직원들은 무료 식사와 다과를 즐기고 (매년 구글은 약 7천만 달러 정도를 쓴다), 트레이너가 대기하는 체육관과 마사지실이 붙어 있는 건물들 사이로 이동할 자전거를 지급받는다. 직원들은 커피카페테리아 탁자에서 식사하고, 당구대와 에스프레소 기계가 있는 공간에서 쉰다. 세차나 오일 교환 때문에 캠퍼스를 떠날 필요도 없다. 일이면 검진 차량이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이발사, 세탁업자, 보모, 동물 도우미, 치과의사, 그리고 무료 검진 담당의도 5명이나 있다. 한 좌석에 무선인터넷이 완비된 바이오 디젤 통근 버스가 직원들을 능은 샌프란시스코까지 늦은 밤까지 실어 나른다. 노트북 컴퓨터도 살까 없다. 그저 마음에 드는 모델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여성은 출산을 5개월간 유급으로 낼 수 있고, 신생아 아빠는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주 휴가를 낼 수 있다.

Bold

구글의 철학은 "You can make money without doing evil."(악해지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와, "You can be serious about fun."(정장 없이도 진지해질 수 있다) 그리고 "Work challenging and the challenge should be fun."(일은 도전이어야 하고 도전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이다. 'Don't Be Evil' (나쁜 짓을 하지 말자)이라는 철학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사용자 층에 있는 쿠키에 대한 비난으로, 미국의 인권단체 'Public Information Research'에 의해, 구글은 빅브라더상(Big Brother Award) 후보가 되기도 했다. 구글은 형식을 따지지 않는 자유롭고 재미있는 기업 문화로 잘 알려져 있다. 2007, 2008 구글은 가장 일하기 좋은 장소로 뽑혔다. 구글 엔지니어들은 '직감'으로 결정을 내리지거나 판단력 같은 것은 정량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험보다는 효율을 중시한다. 그들은 사실과 베타 테스트와 수학적 논리를 추구한다. 구글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도 관심을 보인다. 구글은 사옥과 기업 캠퍼스 가운데 가장 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1천瓩을 공급할 만한 전기를 생산한다. 외부 주차장에 태양발전소를 두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게 했고,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직원에게는 장려금 (처음에는 5천 달러, 현재는 3천 달러)을 제공한다. 구글은 수익의 1%를 때어내 자선사업 부문인 구글 파운데이션에 보낸다. 넓은 캠퍼스 부지 내에서의 건물 간 이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구글이 제공하는 자전거가 도처에 있다. 구글이 1999년 8월 처음 구글플렉스로 이주했을 때, 거기에는 '직원들이 내부 일에만 집중하게 하겠다'는 결의가 반영되어 있다. 구글플렉스에는 2~3층짜리 나지막한 건물이 모여있고, 건물 부지 내에는 야외테이블과 벤치, 울창한 나무들, 채소 정원, 사람과 자전거로 활기 넘치는 산책로가 있다. 직원들은 무료 식사와 다과를 즐기고 (매년 7천만 달러 정도를 쓴다), 트레이너가 대기하는 체육관과 마사지실이 붙어 있는 건물들 사이로 이동할 자전거를 지금 받는다. 커다란 카페테리아 탁자에서 식사하고, 당구대와 에스프레소 기계에서 차를 즐기면 검진 차량이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이발사, 세탁업자, 동물 도우미, 치과의사, 그리고 무료 검진 담당의도 5명이나 있다. 편안한 좌석에 무선인터넷이 완비된 바이오 디젤 통근 버스가 샌프란시스코까지 늦은 밤까지 실어 나른다. 노트북 컴퓨터도 살 필요가 없다. 그저 마음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여성은 출산 휴가를 5개월간 유급으로 신생아 아빠는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7주 휴가를 낼 수 있다.

ExtraBold

구글의 철학은 "You can make money without doing evil."(악해지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와, "You can be serious about fun."(정장 없이도 진지해질 수 있다) 그리고 "Work challenging and the challenge should be fun."(일은 도전이어야 하고 도전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이다. 'Don't Be Evil' (나쁜 짓을 하지 말자)이라는 철학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사용자 컴퓨터 내에 살아 있는 쿠키에 대한 비난으로, 미국의 인권단체 'Public Information Research'에 의해, 구글은 빅브라더상(Big Brother Award) 후보가 되기도 했다. 구글은 형식을 따지지 않는 자유롭고 재미있는 기업 문화로 잘 알려져 있다. 2007, 2008 구글은 가장 일하기 좋은 장소로 뽑혔다. 구글 엔지니어들은 '직감'으로 결정을 내리지거나 판단력 같은 것은 정량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험보다는 효율을 중시한다. 그들은 사실과 베타 테스트와 수학적 논리를 추구한다. 구글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도 관심을 보인다. 구글은 사옥 지붕에 미국 기업 캠퍼스 가운데 가장 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1천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만한 전기를 생산한다. 외부 주차장에 태양발전소를 두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게 했고,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직원에게는 장려금 (처음에는 5천 달러, 현재는 3천 달러)을 제공한다. 구글은 수익의 1%를 때어내 자선사업 부문인 구글 파운데이션에 보낸다. 넓은 캠퍼스 부지 내에서의 건물 간 이동을 위해 신청에 의해 차량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건강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구글이 제공하는 자전거가 도처에 배치되어 있다. 구글이 1999년 8월 처음 구글플렉스로 이주했을 때, 거기에는 '직원들이 내부 일에만 집중하게 하겠다'는 결의가 반영되어 있었다. 구글플렉스에는 2~3층짜리 나지막한 건물이 모여있고, 건물 밖에는 야외테이블과 벤치, 울창한 나무들, 채소 정원, 사람과 자전거로 활기 넘치는 산책로가 있다. 직원들은 무료 식사와 다과를 즐기고 (매년 7천만 달러 정도를 쓴다), 트레이너가 대기하는 체육관과 마사지실이 붙어 있는 건물들 사이로 이동할 자전거를 지금 받는다. 직원들은 커다란 카페테리아 탁자에서 식사하고, 당구대와 에스프레소 기계에서 차를 즐기면 검진 차량이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이발사, 세탁업자, 보모, 애완동물 도우미, 치과의사, 그리고 무료 검진 담당의도 5명이나 있다. 편안한 좌석에 무선인터넷이 완비된 바이오 디젤 통근 버스가 직원들을 멀게는 샌프란시스코까지 늦은 밤까지 실어 나른다. 노트북 컴퓨터도 살 필요가 없다. 그저 마음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여성은 출산 휴가를 5개월간 유급으로 신생아 아빠는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7주 휴가를 낼 수 있다.

Black

구글의 철학은 "You can make money without doing evil."(악해지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와, "You can be serious about fun."(정장 없이도 진지해질 수 있다) 그리고 "Work challenging and the challenge should be fun."(일은 도전이어야 하고 도전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이다. 'Don't Be Evil' (나쁜 짓을 하지 말자)이라는 철학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사용자 컴퓨터 내에 살아 있는 쿠키에 대한 비난으로, 미국의 인권단체 'Public Information Research'에 의해, 구글은 빅브라더상(Big Brother Award) 후보가 되기도 했다. 구글은 형식을 따지지 않는 자유롭고 재미있는 기업 문화로 잘 알려져 있다. 2007, 2008 구글은 가장 일하기 좋은 장소로 뽑혔다. 구글 엔지니어들은 '직감'으로 결정을 내리지거나 판단력 같은 것은 정량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험보다는 효율을 중시한다. 그들은 사실과 베타 테스트와 수학적 논리를 추구한다. 구글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도 관심을 보인다. 구글은 사옥 지붕에 미국 기업 캠퍼스 가운데 가장 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1천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만한 전기를 생산한다. 외부 주차장에 태양발전소를 두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게 했고,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직원에게는 장려금 (처음에는 5천 달러, 현재는 3천 달러)을 제공한다. 구글은 수익의 1%를 때어내 자선사업 부문인 구글 파운데이션에 보낸다. 넓은 캠퍼스 부지 내에서의 건물 간 이동을 위해 신청에 의해 차량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건강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구글이 제공하는 자전거가 도처에 배치되어 있다. 구글이 1999년 8월 처음 구글플렉스로 이주했을 때, 거기에는 '직원들이 내부 일에만 집중하게 하겠다'는 결의가 반영되어 있었다. 구글플렉스에는 2~3층짜리 나지막한 건물이 모여있고, 건물 밖에는 야외테이블과 벤치, 울창한 나무들, 채소 정원, 사람과 자전거로 활기 넘치는 산책로가 있다. 직원들은 무료 식사와 다과를 즐기고 (매년 7천만 달러 정도를 쓴다), 트레이너가 대기하는 체육관과 마사지실이 붙어 있는 건물들 사이로 이동할 자전거를 지금 받는다. 직원들은 커다란 카페테리아 탁자에서 식사하고, 당구대와 에스프레소 기계에서 차를 즐기면 검진 차량이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이발사, 세탁업자, 보모, 애완동물 도우미, 치과의사, 그리고 무료 검진 담당의도 5명이나 있다. 편안한 좌석에 무선인터넷이 완비된 바이오 디젤 통근 버스가 직원들을 멀게는 샌프란시스코까지 늦은 밤까지 실어 나른다. 노트북 컴퓨터도 살 필요가 없다. 그저 마음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여성은 출산 휴가를 5개월간 유급으로 신생아 아빠는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7주 휴가를 낼 수 있다.

Small Caps

Small Caps?



SMALL CAPS!

Ligatures

Coffe fits me.



Coffe fits you.

Fractions

1/2 23/45



1/2 23/45

Kerning

HAWAI BLVD



HAWAI BLVD

Subscripts numerals

H₂O



H₂O

Superscripts numerals

km² ► km²

Lining Figures

1247 ► 1247

Old Style Figures

1247 ► 1247

Tabular Lining Figures

1+8≈>5÷3 ► 1+8≈>5÷3

Tabular Old Style Figures

1+8≈>5÷3 ► 1+8≈>5÷3

Jamo

Currency Symbols

Arrows

Mathematical Symbols

% / ⋯ + − × ÷ = ≠ > < ≥ ≤ ± ≈ ~ ¬ ^
∞ Ø ∫ Ω Δ ∏ ∑ √ μ ∂ % %o

Geometric & Graphic Symbols



Capital Eszett

GRÜßE

Brack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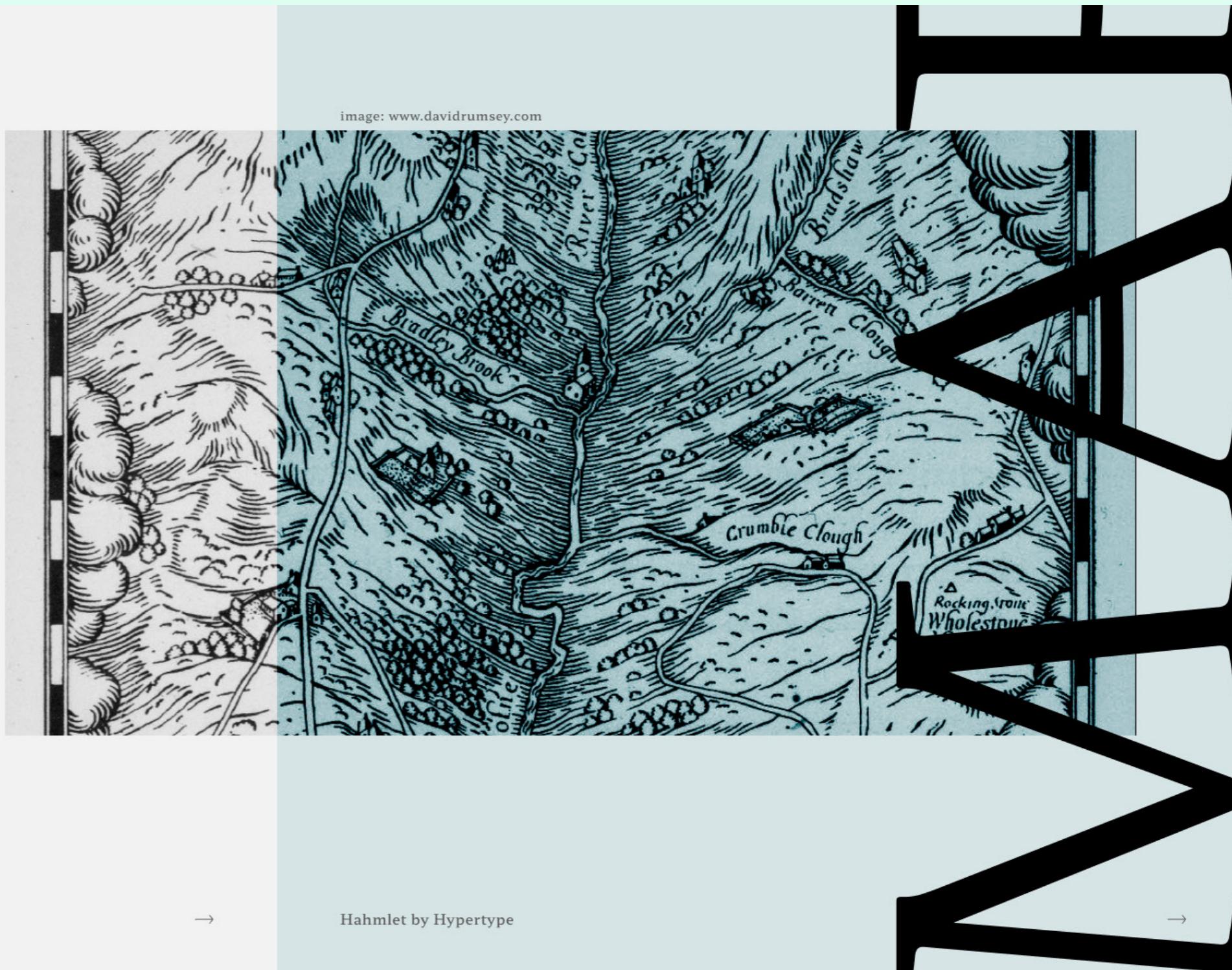
() { } [] < > [] { } < >

And many more.

LOVELACE

Question the boundaries of experiments

Life was simple before World War II. After that, we had systems. It's always easier to ask forgiveness than it is to get permission. The most dangerous phrase in the language is, We've always done it this way. If in doubt – do it.



She saw what he didn't

¶ Ada saw something that Babbage in some sense failed to see. In Babbage's world his engines were bound by number—What Lovelace saw—was **that number could represent entities other than quantity.** So once you had a machine for manipulating numbers, if those numbers represented other things, letters, musical notes, then the machine could manipulate symbols of which number was one instance, according to rules. ¶ It is this fundamental **transition from a machine which is a number cruncher to a machine for manipulating symbols according to rules** that is the fundamental transition from calculation to computation—to

Manipulating Data | page 12

page 34 | Fundamentals

Computational Paradox | page 56

page 78 | Quality vs. Quant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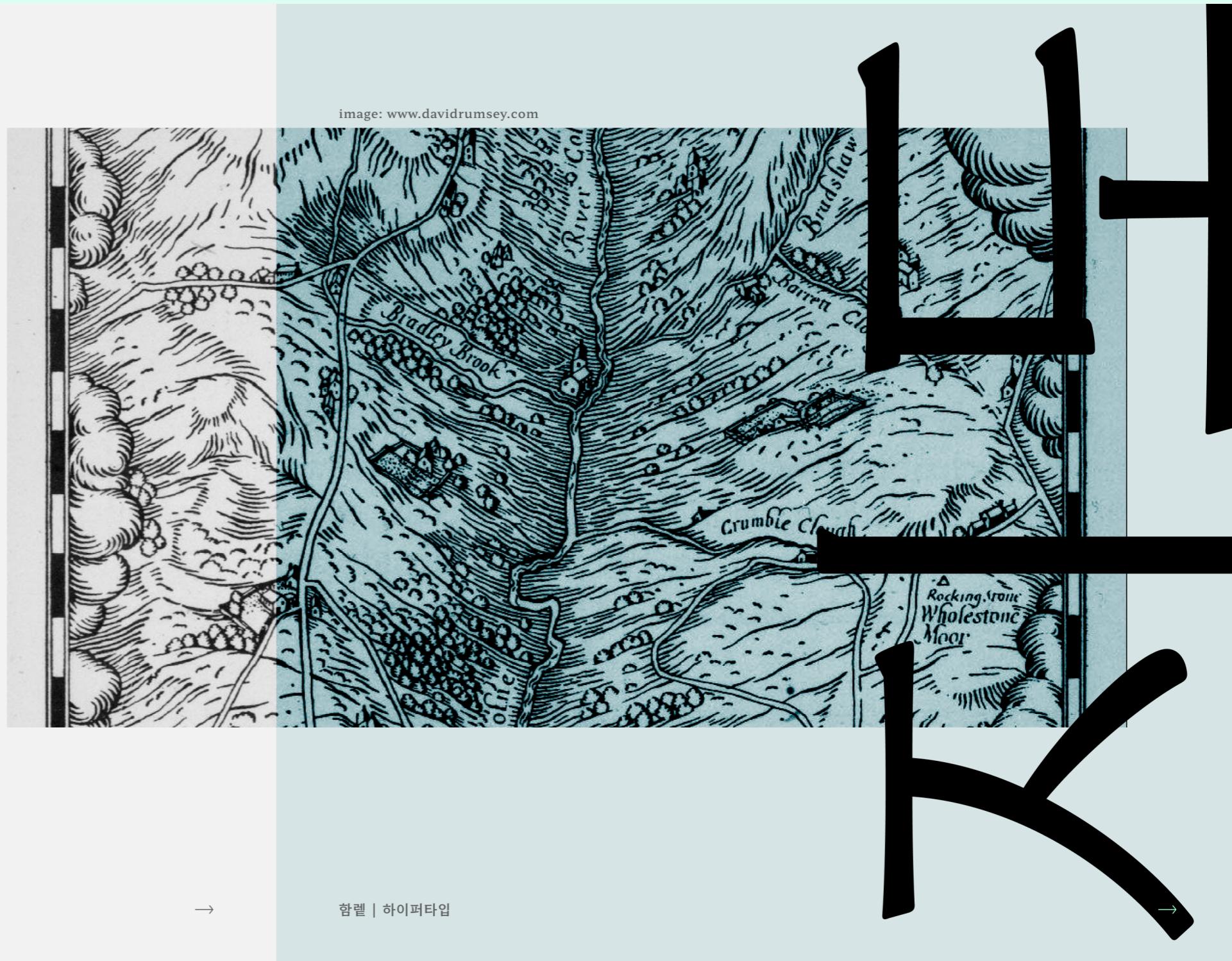


러브레이스

모두가 인정하는 컴퓨팅 선구자가 되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전의 삶은 단순했다. 그 후 시스템이 생겼다. 허락을 받는 것보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훨씬 쉽다. 우리말 중 가장 위험한 표현은, ‘여태껏 이렇게 해왔어’다. 의심이 된다면, 그냥 해보자.

image: www.davidrumsey.com



그녀는 그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 에이다는 주석문에서 ‘해석기관’은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입력하는 방식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계산기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하였고, 특히 해석기관이 더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배비지조차도 단순히 계산이나 수치를 처리하는 장치로만 해석기관을 이해했던 것과 비교하면 개념적인 도약이었다. 에이다는 음악의 요소들이 해석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될 수 있다면 해석기관을 이용하여 작곡과 같은 창작활동도 가능하다고 언급하였고 여기서 현대의 컴퓨터에 대한 예측을 엿볼수 있다. ¶작업을 마친 후에도 두 사람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고 서신 교환은 계속되었다. 말년에 에이다는 배비지를 유언의 집행자로 지명하는 편지를 썼지만, 법적문제로 인해 전달되지는 못했다. ¶에이다가 최초의 프로그래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

데이터 조작 언어의 종류 | 12쪽

34쪽 | 전산 언어학의 기초개념

전산 운용의 패러독스 | 56쪽

78쪽 | 품질관리 vs. 생산관리



흔히 줄여서 햄릿은 1599년에서 1601년 사이에 쓰인
The Tragical Historie of Hamlet, Prince of
덴마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햄릿이 자신의 아버지를
Claudius, des Königs Bruder, ermordet den
클라우디우스에게 복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Prinz Hamlet strebt danach, seinen Vater zu
어떤 공연에서는 액션이 주요 플롯 장치로 등장하고 있다.
Der Stoff des Stückes geht auf eine mittelalte
햄릿의 무의식적 욕망에 초점을 두기도 하고 여성주의 관점에서
Das Werk war schon bei seinem Erscheinen ein
문학 작품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작품의 하나로
Die Beliebtheit des Stückes zeigte sich bald an
그의 작품 중 많이 공연된 작품의 하나였으며 오늘날
Hamlets Monologen, wie Sein oder Nichtsein,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공통적으로 주인공
Die Geschichte des in ein tintenschwarzes Wasser
주인공들이 어떤 성격적 결함을 갖고 있고 이 결함으로
Diese Erzählstränge werden in eine politische